

# 2017년, 서울-강릉 1시간대 연결

- 원주~강릉 철도 착공...평창동계올림픽 지원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강원지역 발전에 기여할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기공식이 지난 1일 강릉역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진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원주~강릉 철도 건설사업은 총 3조 9,4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원주~평창~강릉간 총연장 120.2km를 최대속도 250km/h급의 복선전철로 건설하게 된다.

원주~강릉 철도는 '08년 9월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10년 5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정부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을 결정하여 2년간의 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되었다.

총 11개 공구중 공사기간이 긴 평창~대관령 구간 5개 공구를 우선 착공하고 나머지 6개 공구(서원주~평창, 강릉시내)는 올해 12월내에 단계적으로 착공하여, 2017년 말에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원주에서 강릉까지 37분이 소요되며(원주~평창간 28분), 원주~강릉 철도가 수도권~원주간 기존선을 통해 수도권까지 연결되므로 서울(청량리)에서 강릉까지 66분대에 도달이 가능하다.

\* 수도권~원주간 기존선: 인천공항~용산(공항공철도+신경의선), 용산~청량리(경원선), 청량리~원주(중앙선)  
또한 수도권과 강원권의 고속 철도망 구축으로 인해 강원도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는 수도권 기능의 분담 및 관광·레저 산업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

\* 철도건설로 인한 시간단축효과(청량리~강릉): 건설전 6:24 → 건설후 1:06

\*\* 고속도로로 서울~강릉 통게이트간 2:20 소요

특히, 인천국제공항~용산~청량리~원주간 기존선과 원주~강

릉 철도가 연결되어 인천공항에서 평창과 강릉까지 KTX열차가 환승없이 운행되므로,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참가자와 관광객이 편리하게 경기장을 찾을 수 있다.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광역경제권의 상생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강원권-동남권-호남권을 연결하는 모자형 국가 철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공단, 동반성장 우수기업 선정

- 협력사 및 장비·자재업체 대금지급 SMS 문자 알림 등 -

공단은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2011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동반성장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단은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까지 SMS 문자발송(10,550건)을 통해 대금지급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건설사 434개사에 선금 지급을 최대 70%까지 확대하여 4천 542억원의 선금을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하도급계약 세부 심사 기준 제정, 하도급점검 멘토링위원회 구성,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경영자문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경영닥터제와 시니어 비즈멘트 제도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반성장 아카데미·홈페이지 구축·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제도 도입, 9개 건설현장 70개사의 기술지원팀 지원, 공단의 연구시설 및 자재의 공동활용(4층 시험기 총 120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아울러 2~3차 협력사간 불법 불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 확산(139~1,659사), 원도급자 신용상태 악화로 하도급대금지급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공단이 하도급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도급자 신용상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R&D 협력펀드 20억원 조성으로 중소기업 기술투자, 하도급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2~7건) 하고, 중소기업과 원가절감 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을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도입, 해외시장 진출 및 국내 철도 유휴 부지 개발 등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등 2012년 동반성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을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철도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대금 현물 지급,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미증액 등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여 철도건설 현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공단, 철도 설계기준 국제화 추진

- 철도설계·시공 경쟁력 강화 기대 -

공단은 건설사업의 해외개방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철도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분야에 대한 설계기준을 국제철도연맹(UIC)의 표준화 코드번호를 부여한 '국제화 방식의 철도 설계 기준체계'로 정비하기로 하였다.

철도건설 설계기준 체계정비는 ▲사용자가 찾아보기 쉽도록 기준관리를 코드번호로 체계화 ▲상위 기준과 하위 지침간 중복·상충에서 조려하는 사용자 불편 해소 ▲기준정비의 전문성·통일성·조화성 확보 ▲국제철도연맹(UIC) 기준의 적용 확대와 연계 ▲설계기준 제·개정 이력의 체계적 관리 등 창의적, 경제적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설계·시공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철도건설 전문분야의 설계기준을 선진화된 형태의 코드체계(KR CODE 2012)를 도입, 공종별로 구분하고 코드번호를 부여한 '철도설계지침 및 해설서' 발간작업을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석준근 설계기준처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철도설계 기준을 정비하여 한국의 철도기술이 철도 선진국 수준에 한 단계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공단, 철도역사 설계 직접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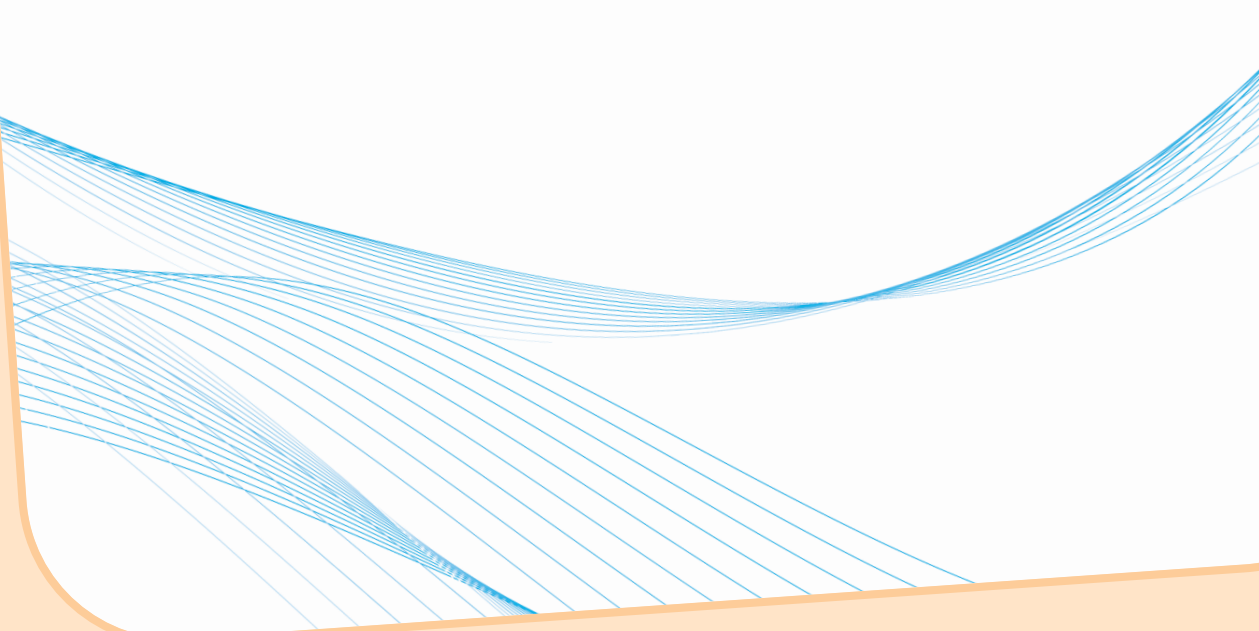
- 건축분야 기술력 향상 및 예산절감 효과 기대 -

공단은 지난 5월 31일부터 발표되는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건축사 업무신고 면제 대상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철도역사 설계를 직접 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공단은 역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 설계에 대하여 외주영역을 시행하였으나,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자체 인력을 활용한 직접설계를 통해 건축분야 기술력 향상과 함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작년 김광재 이사장 취임이후 건축분야 직접 설계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에도 노력하는 한편, 금년에는 포승~평택 신호장 등 3개 사업의 운전보안 시설 6동을 직접설계 시행대상으로 선정하고 시범설계에 착수하였다.

조순형 건축설비처장은 "철도건축물 직접설계에 따라 그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선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역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도면 작도능력 등 설계역량을 확보하여 중간, 실시설계 및 소규모역사까지 직접설계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동선 동백산~도계 철도이설구간 종합시험운행 개시

- 금년 6월 27일 개통... 국내유일 '스위치백 철도' 역사 속으로 -



공단은 영동선 철도 동백산~도계간 17.8km 이설 공사를 지난 5월 14일 완료하고, 5월 30일부터 6월 22일까지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영동선 동백산~도계간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선로의 기술기와 급곡선이 심하고 건설한지 오래되어 붕괴우려가 있는 터널(산골) 등으로 열차안전운행 확보가 곤란하여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설을 추진, 지난 '99년에 착공하여 총 사업비 5,368억원을 투입 13여 년만에 완공하게 되었다.

공단은 이 구간에 시험열차를 투입하여 단계별 속도를 증가시키는 종합시험운행을 마친 뒤 오는 6월 27일 개통할 예정이다.

동백산~도계간 철도는 동백산역과 도계역간 단차가 378m 되는 험준한 산악지대로 구간 스위치백(switchback)으로 운행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이 있었으나 이를 루프(loop)식 나선형으로 일반철도 최장(最長)인 솔안터널(16.24km)로 연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하나뿐인 흥전~나한정간 스위치백 철도는 추억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공단은 스위치백 선로를 철거하지 않고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스위치백 구간을 체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솔안터널이 개통되면 동백산~도계간 운행거리가 2km 단축되고 운행시간도 12~25분 줄어들며, 선로용량도 4회(31회~35회) 증대되어 여객 및 물류수송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전선 진주역사 상량식 거행

- 금년 10월말 완공 예정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지난 5월 24일 진주시 가좌동 현장에서 이태균 본부장 및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전선 진주역사 상량식을 가졌다.

상량식은 건축물 골조공사의 마지막 부재를 올리는 의식으로, 경전선 진주역은 금년 10월말 완공될 예정이다.

경전선 진주역이 완공되면 마산~진주구간은 새 노선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며, 금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이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진주객사(齎舍)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진주역사는 총 면적 5만 6260㎡에 연면적 2870㎡로 건립되며, 전통건축 양식으로 본진 좌우에 익사(翼舍) 2채를 배치하여 공·사적공간을 이룬 진주객사처럼 설계되었다.

또한, 진주역사는 철도역사 건립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 Barrier Free) 인증제도'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용객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